

과소비 부채가계의 인구학적 특성 및 소득과 지출에 관한 일고찰*

이 성 립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우리 나라의 가계 부채는 2001년 총 341.7조원에서 2002년 말 현재 439조원으로 무려 28.5%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1년 말 62.7%에서 2002년 말 75%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UBS Warburg, 2003년 3월 5일자; 재경부 정책자료에서 재인용). 가계부채의 급증 현상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규부채 증가분의 60% 정도가 주택 구입 등 자산 증식에 투자되어 오히려 가계 재정의 건실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계신용 버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는 한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나 규모확대는 상환능력의 저하와 위험증가로 이어져 신용흐름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을 높일 소지가 있다는 비관론도 만만찮게 거세게 일고 있다. 본 연구는 부채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가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과부채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통하여 부채를 지고 살면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는 가계가 다른 가계(가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거나 부채유입이 있더라도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은 가계)에 비해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소득과 소비지출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과소비 부채가계는 전체의 12.6%이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가계지출은 240만원으로 나타나 일반 부채가계(전체의 60.4%)의 월평균 소득 약 280만원, 가계지출 200만원과 비교하여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이 가장 높다(부채없는 과소비 가계(4.24%)는 월소득 190만원, 가계지출 220만원; 부채없는 일반 가계(22.8%)는 월소득 240만원, 가계지출은 160만원). multinomial logit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소비 부채 가계와 일반 부채가계의 특성과 가계지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과소비 부채 가계는 소득이 낮고, 가구주가 여성이며, 취업자가 한명이거나 가장의 학력이 4년대 대학, 직업은 준전문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출면에서는 광열비와 비소비지출의 필수적인 지출군에 대한 지출 수준 뿐 아니라 가구집기, 의복, 교통, 통신비와 잡비의 선택적인 지출 수준도 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부채가계에는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비, 가구집기,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이상의 결과는 과소비 부채 가계는 필수적인 지출이 빠듯한 가계와 일상적인 지출이 과도한 가계가 혼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의식적으로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과소비 및 부채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반 부채가계의 특징적인 지출은 교육비, 주거비, 가구집기의 특정 목적에 관련된 것으로 부채 기간이 가족 생애주기상 일정기간에 한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